

2018년 12월 12일

# KIWOOM DAILY

|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 미 증시, 트럼프 발언으로 상승과 하락 반복 트럼프, 무역협상 낙관적 발언 Vs. 정부 섣다운 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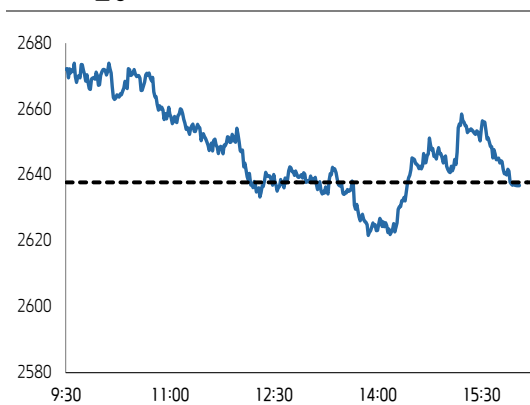
### 미 증시 변화 요인

미 증시는 트럼프가 중국과의 무역분쟁 실무 협상에 대한 낙관적인 발언을 하자 상승 출발. 특히 자동차와 반도체 등 기술주가 상승 주도. 그러나 트럼프가 국경장벽 예산을 둘러싸고 민주당 지도부와의 마찰속에 '정부 섣다운'을 주장하자 매물 출회되며 장중 한 때 하락을 보인 이후 혼조 마감(다우 +0.04%, 나스닥 +0.16%, S&P500 -0.04%, 러셀 2000 -0.21%)

미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의해 변화를 보이다 혼조 마감. 먼저 무역분쟁과 관련된 낙관적인 내용. 전일 중국 증시는 장 후반 중국 상무부가 미국과 전화통화를 통해 무역협상을 시작했다고 발표하자 상승 전환에 성공했었음. 트럼프 대통령 또한 "중국과 매우 생산적인 대화를 진행 중이며 중요한 발표에 주목하라" 라고 주장하는 등 무역분쟁 관련 실무협상에 대한 낙관적인 내용이 발표. 일부 미국 언론은 미국과 중국은 농산물 수입과 자동차 관세 인하(40%→15%)를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 한편, 중국 상무부는 "일정표와 로드맵을 통해 다음 단계로 나아가며 내년 초에 워싱턴에서 만남을 가질 것이다" 라고 발표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의회 지도부와의 만남에서 "국경 장벽 예산에 50 억달러를 주지 않으면 정부를 폐쇄하겠다" 라고 위협하자 미 증시는 하락 전환. 더불어 "만약 하원에서 예산 지원이 없다면,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국경에 장벽을 짓겠다" 라고 언급하는 등 추가적인 국경 장벽 예산이 없다면 정부 폐쇄도 불사하겠다고 강경한 입장 발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자들에 대해 범죄자라고 주장하자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 대표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민 1 세대의 범죄율은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보다 낮다" 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는 등 마찰이 확대. 회담 이후 트럼프는 지속적으로 '정부 폐쇄'를 주장 했으며, 민주당 의회 지도부는 "결론은 간단하다. 대통령이 섣다운을 원하다" 라고 언급. 다만, 정부 섣다운 이슈는 금융시장에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 주요 지수는 하락폭을 확대하지는 않았음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	지수동락률(%)	Close	D-1	지수	지수동락률(%)	Close	D-1
KOSPI		2,052.97	-0.04	홍콩항셱		25,771.67	+0.07
KOSDAQ		661.01	-1.40	영국		6,806.94	+1.27
DOW		24,370.24	-0.22	독일		10,780.51	+1.49
NASDAQ		7,031.83	+0.16	프랑스		4,806.20	+1.35
S&P 500		2,636.78	-0.04	스페인		8,735.50	+0.87
상하이종합		2,594.09	+0.37	그리스		635.84	-0.37
일본		21,148.02	-0.34	이탈리아		18,591.01	+0.98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 금융주 부진

브로드컴(+3.17%)은 배당을 늘린다는 소식에 힘입어 상승 했다. 마이크론(+1.18%)은 18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긍정적인 전망이 부각되자 상승 했다. 인텔(+0.36%), TI(+0.79%) 등 반도체 관련주도 동반 상승 했다. GM(+0.78%), 포드(+0.23%)는 중국이 관세율 인하에 합의했다는 보도에 힘입어 상승 했다. 트위터(+3.05%)는 기술적 분석에 따른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했다.

반면, JP모건(-0.98%), 웰스파고(-2.13%), 씨티그룹(-1.49%) 등 금융주는 국채금리가 상승 했으나,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자 매물 출회되며 하락했다. 할리버튼(-1.64%), 솔룸베르거(-1.74%) 등 원유 서비스 업종은 국제유가 하락 여파로 굴착 장비가 축소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자 하락 했다. NVIDIA(-2.42%)는 소프트뱅크가 내년초에 지분을 매각할 계획이 알려지자 하락 했다. 애플(-0.57%)은 전일 저점 대비 4% 상승한 여파로 매물 출회되며 하락 했다.

####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0.23%	대형 가치주 ETF	-0.19%
에너지섹터 ETF	-1.28%	중형 가치주 ETF	-0.21%
소매업체 ETF	-0.44%	소형 가치주 ETF	-0.05%
금융섹터 ETF	-0.97%	배당주 ETF	+0.40%
기술섹터 ETF	+0.12%	변동성 ETF	-0.32%
소셜 미디어업체 ETF	+1.01%	대형 성장주 ETF	+0.09%
인터넷업체 ETF	+0.38%	중형 성장주 ETF	-0.05%
리츠업체 ETF	+0.15%	소형 성장주 ETF	-0.15%
주택건설업체 ETF	-0.77%	신흥국 고배당 ETF	+0.30%
바이오섹터 ETF	+0.34%	신흥국 저변동성 ETF	+0.61%
헬스케어 ETF	+0.31%	하이일드 ETF	+0.26%
곡물 ETF	-0.52%	물가연동채 ETF	-0.40%
반도체 ETF	+0.50%	Long/short ETF	+0.18%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63.86	+0.03%	-6.77%	-8.27%
소재	323.13	-0.37%	-6.90%	-6.03%
산업재	567.68	-0.60%	-7.69%	-6.66%
경기소비재	818.98	+0.04%	-6.13%	-5.97%
필수소비재	563.47	+0.85%	-2.16%	-3.55%
헬스케어	1,052.60	+0.30%	-4.45%	-2.06%
금융	405.46	-1.02%	-9.74%	-9.76%
IT	1,146.76	+0.09%	-5.62%	-6.31%
커뮤니케이션	144.99	+0.15%	-3.33%	-3.06%
유틸리티	286.17	+0.30%	+1.05%	+2.98%
부동산	208.79	+0.11%	-0.41%	+2.04%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한국 주식시장 전망

### 긍정적인 요인에 주목

MSCI 한국 지수는 0.17% 하락 했으나, MSCI 신흥 지수는 0.76% 상승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수(+2,717 계약)에 힘입어 1.20pt 상승한 266.35pt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27.50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4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주식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폐쇄를 언급하자 장중 하락 했다. 그러나 과거 미국 정부 폐쇄가 한국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물론, 관련 이슈가 지속돼 미국 소매 판매 등에 영향을 준다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지속적으로 주목 해야 한다.

그러나 시장 참여자들은 이러한 미 정부 폐쇄 이슈 보다는 '낙관적인 미-중 무역협상'이 더욱 주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탈리아 예산안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완화되고, 영국 브렉시트 관련 이슈도 확대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 증시는 긍정적이다.

더불어, 국제유가가 리비아의 생산 차질 소식에 힘입어 상승 한 점, 브로드컴이 배당을 높이고, 마이크론도 18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긍정적인 전망이 발표되며 상승하는 등 반도체 관련주가 상승한 점 또한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 주요 경제지표 결과

### 미국 소기업 낙관지수 둔화

11월 미국 소기업 낙관지수는 전월(107.4) 보다 둔화된 104.8로 발표되었다. 10개 세부 항목 중에서 8개는 하락하고, 2개는 변경되지 않았다. 다만, 여전히 고용지수는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긍정적이다.

11월 미국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1% 상승했으나, 전년 대비로는 2.5%로 지난달 발표치(yoy +2.9%) 보다 낮아졌다.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수치는 전월대비 0.3%, 전년 대비로도 2.7% 상승해 예상치 보다 높았다.

## 상품 및 FX 시장 동향

### 국제유가 반등

국제유가는 리비아가 하루 31.5 만 배럴 생산 하는 유전이 민병대에 의해 탈취돼 수출 불이행을 발표하자 상승 했다. 한편, EIA 는 단기에너지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국제유가 전망을 전월 보다 2.4% 하향 조정 된 65.18 달러로 발표 했고, 2019 년 전망 또한 전월 보다 16.4%나 하향 된 54.19 달러로 발표했다. 다만, 올해 미국 산유량이 전월 보다 소폭 하향 된 하루 1,088 만 배럴로 발표 한 점은 긍정적이다.

달러화는 경제지표 둔화 및 무역분쟁 완화에 힘입어 여타 환율에 약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유럽발 정치 불확실성이 부각되며 유로화와 파운드화가 약세를 보이자 강세로 전환했다. 유로화는 프랑스가 감세와 임금 인상을 발표해 예산 적자가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자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파운드화는 장중 한 때 반등을 보이기도 했으나, 메르켈 총리가 메이총리의 브렉시트 합의안 수정 요구에 “재협상은 없다” 라고 분명히 뜻을 박자 브렉시트 우려감이 재부각 되며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무역분쟁 완화와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했다. 더불어 3 년물 국채입찰에서 응찰율이 2.59 배를 기록해 전분기(2.61 배) 보다 낮았다는 점도 상승 요인이었다.

금은 달러 강세와 무역분쟁 우려 완화 여파로 소폭 하락 했다. 구리를 비롯한 비철금속은 무역분쟁 완화에 힘입어 상승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1.48%, চাল근도 1.63% 상승 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51.65	+1.27	-3.00	Dollar Index	97.462	+0.25	+0.51
브렌트유	60.20	+0.38	-3.03	EUR/USD	1.132	-0.32	-0.20
금	1,247.20	-0.18	+0.05	USD/JPY	113.4	+0.06	+0.56
은	14.628	+0.16	-0.08	GBP/USD	1.2491	-0.56	-1.79
알루미늄	1,939.00	+0.05	-1.77	USD/CHF	0.9931	+0.27	-0.43
전기동	6,168.00	+1.30	-0.66	AUD/USD	0.7199	+0.13	-1.89
아연	2,590.00	+0.58	+0.04	USD/CAD	1.3394	-0.03	+1.00
옥수수	384.75	+0.20	0.00	USD/BRL	3.9	-0.59	+1.32
밀	521.00	-0.81	-0.29	USD/CNH	6.9035	-0.16	+0.77
대두	915.00	+0.58	+0.36	USD/KRW	1130.10	+0.32	+2.24
커피	102.35	-2.66	-4.26	USD/KRW NDF1M	1127.50	+0.06	+1.53

10 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 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2.879	+2.15	-3.46	스페인	1.434	-0.60	-4.90
한국	1.983	+0.60	-10.90	포르투갈	1.752	-2.90	-5.50
일본	0.050	+0.70	-2.40	그리스	4.245	+1.20	+2.80
독일	0.232	-1.40	-3.10	이탈리아	3.119	+1.50	-3.40